

## 전통한지를 활용한 초등학교 바느질 교육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sup>1)</sup>

최 경 은\* · 이 전 숙\*\* · 김 용 숙\*\*

전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Use of Korean Traditional Paper as Sewing Instructional Materials in Elementary School

Choi, Kyung-eun · Rhie, Jeon-sook\*\* · Kim, Yong-sook\*\*

*Dept. of Practical Arts, Jeonju National Univ. of Educati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

### Abstract

Korean traditional paper is more than paper itself to the Korean people because of its excellence, compared to western paper, in keeping records, flexibility, strength, air permeability, and blocking ultraviolet rays. It has been us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book-making, covering for walls, windows or floors, making clothes and living appliances, and so on. Notwithstanding these merits, mass-produced paper has been substituted for Korean paper.

Recently, however,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o re-evaluate Korean paper because of its physiochemical properties, traditional beauty, eco-friendliness, and applicability to crafts. Korean paper deserves widely received re-evaluation as teaching materials for the education of ecology, creativity, and traditional a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a way of using Korean paper as sewing materials in Practical Arts classes for the elementary school. Previous researches on what properties Korean paper has and how many kinds of crafts have been made of Korean paper were reviewed. Concrete methods of utilizing Korean paper as sewing materials, especially for the finishing skills of sewing, were also proposed.

주제어(Key words) : 전통한지(Korean traditional paper), 바느질소재(sewing materials), 실과(Practical Arts Course)

---

1) 교신저자 : Choi, Kyung-eun,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t. of Practical Arts, 128 Dongseahak-dong, Wansan-ku, Jeonju, Chonbuk, 560-757, Korea  
Tel: 82-063-281-7154, Fax: 82-063-281-7109, E-mail : kechoi@jnue.ac.kr

## I. 서 론

산업혁명이후 급속한 과학과 산업의 발달은 인간에게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대신 '환경오염'이라는 불편한 문제도 동시에 떠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환경오염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데 지구촌 전체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과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교육현장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회가 공통으로 처한 환경·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환경관련내용을 포함하는 단원을 설정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최청림·정미경, 2003).

'환경교육' 외에도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학교교육현장에서 활발하게 논의, 연구되고 있는 또 다른 주제로 '창의성교육'을 꼽을 수 있다(Chamberlain & Kelly, 1981; 신상옥·이수희, 1997). '창의성교육'은 지식정보사회의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많은 정보들을 일일이 다 배우고 터득하여 소화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급변하는 세계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들의 창의성을 개발·육성시키기 위한 교수·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초등 실과교과의 경우도 '가정생활과 관련된 일을 경험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습득하고, 기술과 가정생활에 관련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적성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여,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며, 일을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여 자신의 미래 생활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를 목표로 설정하여(교육부, 1997; 최청림·정미경, 2003), 아동들에게 창의성 개발 및 육성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실과교과의 성격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만들기' 중심으로 전개되는 의생활 단원의 경우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장려하고 창조적 변용을 기반으로 한 체험적, 실천적 노작교육을 전개하는 방향

으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의 내용을 절대화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선택된 내용으로 인식하고 또 다른 생활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적 지식 또는 과정적 지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학습활동도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만들기 용품 이외에 다양한 디자인, 색상, 재료, 방법 등을 사용하여 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한편, 만들기 전 과정을 아동들 스스로 자주적, 자발적으로 구상하고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단순히 기능을 익히고 전수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상상력, 상상력, 기억력, 응용 및 판단력 등의 창의적인 사고력과 독특하고 참신한 패턴이나 형태를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독창성,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하는 개방성 등 창의성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전국교대 실과교과교육연구회, 2001).

한편 '환경교육', '창의성교육'과 함께 '전통문화교육' 또한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세계화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각 지역의 특화된 문화나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이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교육에서의 '전통문화교육'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교육현장 특히 실과 바느질 교육에 한지를 활용하는 경우,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부직포나 직물 소재 외에 새로운 바느질 소재로서 한지는 '환경교육', '창의성교육', '전통문화교육'을 위한 학습소재로서 활용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이외에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친환경소재로서 환경교육의 의의를 살리고 이에 활용될 수 있으며, 종이 이상으로 용도를 확대하여 바느질 소재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바느질할 수 있어 만들기의 다양성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조상의 얼과 슬기를 엿볼 수 있는 전통소재로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계승시키는 전통문화교육에 활용될 수 있고, 전주지방의 지역특산물로서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수업소재로 활용될 수 있으며,<sup>2)</sup> 한지를 활용한 바느질 수업

2) 7차 교육과정에서 실과는 실습소재나 재료를 생활주변에서 찾음으로써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여건을 파악하여 이를 지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을 통해 한지에 관련된 직업에 대해 탐색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 한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미술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안선희 1993; 윤순중 1998; 이경미 2000; 정혜경 1998). 공예기법은 주로 지호공예나 전지공예를 활용한 수업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실과 교과에 관련된 연구(유옥순·오옥선, 2000)가 유일하게 있었는데, 이 또한 전지공예기법을 활용한 수업을 위한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바느질교육에 한지를 활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전주에서 개최된 한지공예대전에 출품된 작품이나 현재 한옥마을 명품관내 한지관이나 시내 곳곳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에 바느질하여 제작되는 상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그간의 한지공예 관련 연구들이 전지공예나 지호공예에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며, 이제 바느질 수업에 활용해 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 실과의 바느질 소재로서 한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한지의 특성, 용도, 한지공예의 종류에 대해 선행연구, 참고문헌 및 관련자료 등을 탐색해봄으로써, 바느질 소재로서의 교육적 활용가능성 및 활용 가치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 II. 전통한지에 대한 탐색적 고찰

### 1. 전통한지의 특성 및 용도

전통한지는 pH가 7.5-9.0인 중성지로서 산성지인 양지에 비하여 오래 보존할 수 있다<sup>3)</sup>는 장점이 있으며, 이외에도 통기성, 유연성, 방음성, 단열성, 습도 조절능력, 자외선차단성 등 우수한 성능을 많이 지니

고 있어 우리 조상들은 한지를 이용,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용품을 제작하여 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하였다.

즉 한지의 주된 용도는 기록이나 보관을 위한 서적 용지였으나, 그 밖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주거용 및 의류용품의 재료로도 널리 이용되었다. 예컨대 헌책 등을 이용하여 종이끈을 꼬아 만드는 지승공예기법, 물들인 한지를 오려서 문양을 만들어 상자를 장식하는 전지공예기법, 종이죽에 풀을 넣어 상자를 떠내는 지호공예기법 등으로 안침, 표주박, 바구니, 소반, 단지, 합자, 방석, 필통, 자리깔개, 화살통 바구니, 미투리, 서류쌈지, 안경집, 지우산, 합죽선, 함지박 등의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한 한지는 여러 겹 겹치면 화살로도 뚫지 못할 정도로 강하여 갑옷의 재료로 사용되었고,<sup>4)</sup> 의류재료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한지 속에 솜을 채우고 옷 속에 넣어 추위를 막았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 밖에 종이 돈인 저화(楮貨)를 만드는 데에도 필요했으며, 종이 나 벌레가 먹지 않도록 옷이나 수의를 싸두거나 장의 용으로도 많이 쓰였다(금광복, 1992; 상기호, 1995; 임영주·상기호, 1997). 또한 창호지나 장판지로도 사용되었는데, 창호지로 사용되는 한지는 닥섬유 사이의 적당한 공간으로 형성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많은 구멍이 있어 흡수성, 통기성, 햇빛투과성 등이 우수하여 방문에 발라두면 환기는 물론, 방안의 온도와 습도까지 자연적으로 조절되었다. 온돌에 장판을 발라서 생활했던 우리의 주생활은 방안의 습기가 많아 이 습기가 창호지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배출되어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게 했던 우리 조상들의 과학습기는 매우 놀랍다.

요즘에는 한지에 무늬와 색을 넣어 그 자연스런 아름다움과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장점으로 포장지, 색지, 앨범, 쇼핑백 등 여러 가지 생활용품, 팬시용품을 만들어 사용되며, 지점토와 비슷한 공예의 새로운 재료가 되기도 한다. 또한 기계적으로는 흡음성과 밀도

3) 장판지, 창호지 등과 같은 한지는 저피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우 질기며 그 수명도 양지나 천보다도 오래간다. 양지는 紙料 PH 4.0 이하의 산성지로서 수명이 대개 50년에서 길어야 100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변색되는 황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삭아 버리는데 비해 한지는 지료 PH7.0 이상의 알칼리성 종이로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결이 고와지고 수명이 천년 이상이 되도록 장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 이후 종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이나 그림들이 아직도 전해 내려온 문화재가 많은데 반해 서양에서는 겨우 300년 내지 400년 된 종이 제품이 한두점 정도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펄프로 구성하는 섬유 세포의 특징으로 섬유장이 길고 폭이 적으며, 리그닌(Lignin)의 함유량이 적어 천보다도 오래 보존될 수 있다. 이러한 한지의 장기 보존성은 예술 가치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4) 한지에 아교를 여러 겹 붙여 철갑옷 대용으로 사용하였는데, 한지 갑옷은 쇠처럼 단단하고, 무게가 철갑옷보다 매우 가벼운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갑옷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종이를 갑의지(甲衣紙)라고 하였다.

가 뛰어나 스피커의 음향판이나 개스킷 등 첨단소재 개발에도 유용하다. 또한 기존의 지승공예, 전지공예, 지호공예기법 등의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도 바느질하여 제작된 생활용품들이 다양하게 선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상품에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의류, 가방, 지갑, 쿠션, 이불, 방석, 덮개류, 식탁매트, 테이블러너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배접한 한지나, 직조한 한지를 소재로 한 수의제품이 일부 공예가들에 의해 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제작기법이나 용도와는 다르게 제작된 생활용품작품들이 새로이 선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한지 및 한지공예품은 전통적인 자연미와 함께 우리 조상들의 삶과 슬기로운 지혜가 담겨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 발달된 종이접기나 중국에서 발달된 종이오리기와는 달리 독특하게 실용성을 살린 못쓰게 된 종이를 이용해 생활용품을 만들어 쓰면서 형성된 우리 고유의 전통공예<sup>5)</sup>로서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오경해, 2002) 우리 고유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대대로 계승·발전시켜 나아감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 2. 한지공예

‘한지공예’는 예전이나 현재나 우리 생활에 필요로 하는 소품으로부터 대작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지며 통칭 ‘지공예’, ‘지물공예’, ‘종이공예’라고도 하며, 한지공예품은 실용적인 생활필수품으로서의 기능성과 더불어 장식적인 효과를 아울러 갖추고 있어 색채의 아름다움과 조형미 그리고 선을 잘 조화시켜 만든 훌륭한 예술품을 연상시킨다. 한지공예는 첫째, 여러 겹으로 배접하므로 견고하고 단단하다. 둘째, 다양한 색지가 있어 개성 있는 작품을 완성할 수가 있다. 셋째, 재료 구입이 용이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다. 넷째, 장식성과 실용성이 뛰어나다. 다섯째, 가볍고 운반이 용이하다. 여섯째, 전통문화의 접근이 쉽고 계승발전이 일 몫 할 수 있다. 일곱째, 외국인들에게 우리 전통공예품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다. 여덟째, 작품이나 상품 제작이 가능하다. 등의 장점을 가지며, 제작기법에 따라 지승공예, 지호공예, 전지공예 등 몇 가지 기법으로 구분된다(김광복, 1992;

엄경희, 1990; 임영주·상기호, 1997).

지승공예(紙繩工藝)는 한지를 일정한 폭으로 잘라 손으로 비벼서 꼬아 노끈을 만들고 이를 엮어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드는 기법으로 폐지의 재활용 차원에서 고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개 목판으로 인쇄한 서책을 이용하여 먹 글씨가 자연스럽게 무늬를 이루어 멋스러운 면이 돋보이게 하거나, 질긴 닥지를 꼬아서 그릇을 만들고 그 위에 옷칠을 하여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향아리나 바구니, 방석, 망태기 등 농업용 기물을 비롯하여 표주박, 주전자, 필통, 서류쌈지, 필통, 버루집, 돛자리, 지갑, 베게, 대야 등의 생활품 외에도, 군사용품으로 紙甲, 투구, 화살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승공예품들이 유물로 전해지고 있다.

지호공예(紙湖工藝)는 창호지로 쓰다 버린 폐지나 글씨 연습이나 학습용 휴지 등 생활주변에서 쓰다 버린 쓸모없는 종이를 잘게 찢어 물에 불린 뒤 밀푼을 섞어 곱게 짠 것으로 그릇 등을 만들고 들기름이나 콩기름으로 마무리를 하고 색지나 무늬를 장식하여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였다. 대개는 그릇이 귀한 농가에서 함이나 과반, 조롱박, 씨앗통과 같은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종이탈을 만들기도 하였다.

색지공예(色紙工藝) 또는 오색한지공예라고도 불리는 오색전지공예(五色剪紙工藝)는 오색의 한지로 길상의 의미를 지닌 각종 문양을 오려 기물을 장식하는 것으로 지장기법과 목골지장기법의 2가지 방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지장기법은 속 골격으로 한지를 여러 겹 배접하여 만든 후지를 재단해서 쓰는 것으로 대체로 무게를 받지 않는 작은 물건인 쌈지, 함, 반진고리, 빗집 등을 만들 때 많이 이용되었고 목골지장기법은 오동나무나 등 목재로 골격을 만들고 그 안팎을 종이로 겹겹이 발라 색지로 치장하여 장, 농, 함 등 비교적 큰 수장구(收藏具)들을 만드는 데 주로 이용되었다.

지화공예(紙花工藝)는 전지공예에 속하는 기법으로 한지를 여러 겹 겹쳐 일정하게 가위나 조각칼로 잘라 종이꽃을 만들어 민속놀이나 무속에 사용하였다.

지화공예(紙畫工藝)는 먼저 기물의 골격을 만든 후 흰 한지를 두세 겹 붙이고 그 위에 오색지를 단색, 또는 이색, 사색으로 붙인다. 물감(당채나 담채 또는

5) 우리나라 전통 가옥의 창호지는 모두 한지였으므로 1년에 한두 차례 창호지를 갈다 보면 버리는 종이가 매우 많았고 또 그 밖에도 집안에서 나오는 휴지의 대부분이 한지였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배접을 하거나 종이 죽을 쑤어 매우 다양한 종이 그릇을 만들어 썼다.

먹물)을 사용하여 당초문, 민화 등을 그려서 종이부채 등을 만들었다.

쭈치공예는 물에 적서 여러 장을 합치고 구김을 주어 부드럽게 한 다음, 우리 전통의 단청문양이나 독살문양, 보상화문양들을 다양한 색상으로 직접 그려 넣거나 당초 문양들의 화려한 꽃무늬의 자수를 놓아서 머리핀, 브로치 등 장신구를 제작하였으며, 한복이나 무복을 만들기도 했고 담배쌈지, 주머니, 연, 부채, 탈이나 무속, 불가 의례 장식용으로 널리 사용했다. 근년 들어서는 종이웃과 지갑류를 만드는 경우에 강도와 독특한 질감을 부여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하다.

### Ⅲ. 전통한지를 활용한 바느질 수업 방안

#### 1. 전통한지 활용 바느질 수업의 교육적 의의

한지는 여러 가지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공예품으로서의 활용성이 뛰어나 몇몇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응용, 제작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지'하면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에게는 포장용 종이나 화선지 또는 창호지 등 '종이'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며, '한지공예품'의 경우도 전지공예나 지호공예 등으로 제작된 생활용품이나 닥종이 인형 등을 떠올리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다. 따라서 한지를 바느질하여 생활용품을 제작한다고 하면, 천에 비해 한지의 강도가 부족하고 세탁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바느질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다거나, 마찬가지로 이유로 설령 바느질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바느질하여 제작된 생활용품들은 내구성이 부족하여 실용적인 생활용품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한지에 약간의 가공처리를 하게 되면 얼마간의 강도 및 내구성이 증진되는 한편 재질면에서도 가죽과 같은 독특한 특성이 부여되어 바느질 소재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실제로 우리 조상들도 이미 기술되어진 바와 같이 쭈치기법 등을 사용하여 주머니를 비롯한 일반생활용품을 비롯하여 일반의류와 갑옷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했으며, 현대에 들어서도 한지를 원료로 방석, 쿠션, 매트, 핸드백, 지갑 및 의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용품이 바느질하여 제작되어 소

되고 있기도 하다.<sup>6)</sup>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기존의 바느질소재로서 사용되어오고 있는 직물이나 부직포에 새로이 한지를 활용하는 방안의 시도도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진다.

한편 7차 교육과정에서 실과는 실습소재나 재료를 생활주변에서 찾음으로써 습득한 지식과 기능을 일상 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권장하는 등 지역사회 특성이나 여건을 파악하여 이를 지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지방의 특산물인 전통한지를 바느질교육에 활용하게 되면 지역생활문화의 교육소재화와 함께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또한 한지를 교육소재로 '지역생활문화'를 테마로 한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검토된 한지 및 한지공예품의 특성 및 상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지가 가지는 바느질소재로서의 교육적 활용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상의 열과 슬기를 엿볼 수 있는 전통소재로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계승시키는 전통문화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전주지방의 특산물로서 지역생활문화의 교육소재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직물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고, 포장지나 폐지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폐기시 생분해도가 높은 점 등 환경친화적 소재라는 점, 울이 없어 모든 방향으로 마름질이 가능하여 버려지는 부분이 적다는 점에서 환경교육의 의의를 살리는 학습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단순한 종이 이상의 용도로 확대하여 바느질 소재로 사용된다면, 아동학습자들에게 새롭고 참신한 학습소재로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지는 공예활용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 및 바느질(쭈치기법, 접착심부착, 염색, 자수, 조각잇기, 누비기 등)이 가능하여 만들기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는 등의 미루어 볼 때 창의적인 수업제재로서 활용될 수 있다.

여섯째, 가장자리 울퉁임이 없고, 시접처리하기가

6) 전주의 경우 전통문화특구의 한옥마을내 명품전시관이나 시내 곳곳의 전통문화상품판매처에서 전시·판매되고 있다.

쉬운 점, 전체 바이어스여서 마름질 방향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점 등 직물에 비해 마름질과 바느질하기 쉬운 점이 있어 바느질기능이 미숙한 초등학생들이 쉽게 용품을 제작할 수 있다.

일곱째, 한지를 활용한 바느질 수업을 통해 한지에 관련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탐색해 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여덟째, 한지는 미술교과의 조형 작업 활동 등에도 사용되는 소재로서 실과와 미술교과를 통합한 통합교육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한지'와 '바느질'을 한 주제로 설정하여 교과활동뿐 아니라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에 연계하여 지도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전통한지의 바느질 소재화

한지가 일반 양지에 비해 부드럽고 질기기는 하나, 바느질소재로 사용하기에는 유연성, 재질, 강도 등의 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이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가공·처리 등을 통해서 바느질 소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공예가나 의류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가공·처리하는 방법에는 줌치기법과 접착심으로 부착시키는 법 등의 2가지 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일부 공예가들은 한지를 직접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하여 쓰기도 하며, 한지사를 직조(織造)하여 직접 용품을 제작하거나 바느질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중 줌치기법과 심지를 접착시키는 방법, 염색 등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초등학생에게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1) 줌치기법

줌치기법은 한지를 여러 장 겹쳐 물을 골고루 발라준 후 손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치대어 준 다음 고무 퍼서 건조시키는 방법으로서, 여러 번 치대는 작업을 통해 한지의 섬유질이 서로 엉켜 붙어 접착제를 가하지 않고도 한지에 부드럽고 독특한 질감의 가죽과 같은 재질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두껍고 질기게 만들 수 있어 바느질 소재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줌치기법을 이용하여 아동들에게 한지의 재질과 강도 등을 향상시켜보는 과정을 경험해 보게 하는 한편, 간단한 용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한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용품을 만들어 보게 할 수 있다.

바느질하기 위해 한지를 줌치기법으로 가공·처리하는 간단한 작업은, 아동학습자들로 하여금 '중이'라는 느낌을 주는 한지가 '가죽'과 같은 재질의 바느질 소재로 변신하는 새롭고, 흥미로운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실과교과의 특성 중 하나인 노작의 기쁨을 만끽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 과학적, 발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교수·학습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 활동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줌치를 위한 재료, 용구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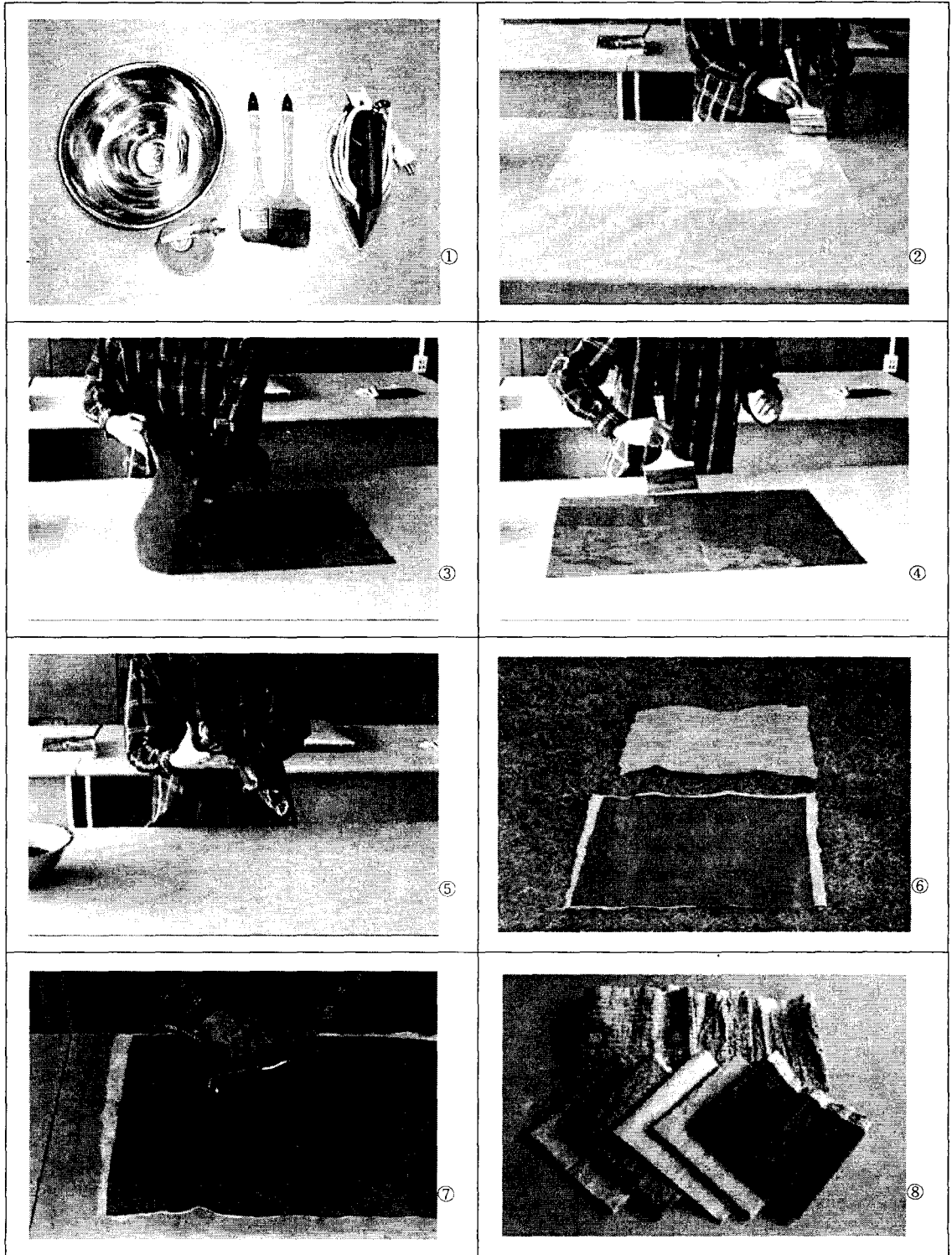
- 재료 및 용구 : 한지, 붓, 볼, 다리미, 건조대
- 방법

①한지 한 장을 잘 펴고 넓은 붓을 사용하여 한지에 물이 고르게 흡수되도록 발라준다. 초등학생의 경우 한지 전지를 그대로 사용하면 아이들이 다루기 힘들 수 있으므로, 1/2등분(약 64X50cm정도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닥이 매끈하지 않으면 기포가 생겨 줌치작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실습실이나 교실의 책상 바닥이 매끈하고 평평하지 않다면, 아크릴판이나 커팅매트(cutting mat) 등을 준비하여 사용한다.

②그 위에 한지 한 장을 포개 놓고 종이 사이 사이에 형성된 기포를 중앙에서 밖으로 빼주면서(손으로 먼저 대충 기포를 빼준 다음, 붓을 사용하여 빼주면 편하다.) 종이에 물이 완전히 흡수되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장을 적층하면서 반복한다. 한지 여러 장을 반복하여 겹쳐주는데, 적층하는 한지의 수는 제작할 생활용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절하면 된다. 시간과 재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배접한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색한지의 가격이 흰색 한지에 비해 1.5배 이상이므로 최상층에 올려지는 한지만 색 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배접한지 1장만을 구김처리만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③겹친 한지의 네 모서리를 포개고 접어 물기를 빼준다.

④뭉쳐있는 한지를 잘 펴서 한 모서리를 왼손으로 받쳐주고 오른손은 아래에서 위로 대각선 방향으로 힘 있게 치댄다. 이 때 균일하게 주름이 가도록 하여 자연스러운 질감을 형성시키도록 여러 방향에서 고르게 치대준다. 이렇게 한지를 겹치면서 치대면 가죽과



〈그림 1〉 줌치기법을 이용한 한지의 바느질 소재화 과정

같이 질겨질 뿐만 아니라 재질도 가죽과 유사하여 진다. 원하는 두께만큼 종이를 여러 장 임의로 적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조된 후에도 구겼다가 펴주는 작업을 반복하면 재질이 더욱 부드러워져 용도에 따라 다양한 두께, 강도, 재질로 작업할 수 있다.

⑤한지를 밝은 곳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바늘구멍 같은 것이 고르게 나게 되면 건조시킨다. 건조는 양끝을 잡고 반듯하게 정리하여준 다음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건조대나 평평한 곳에서 건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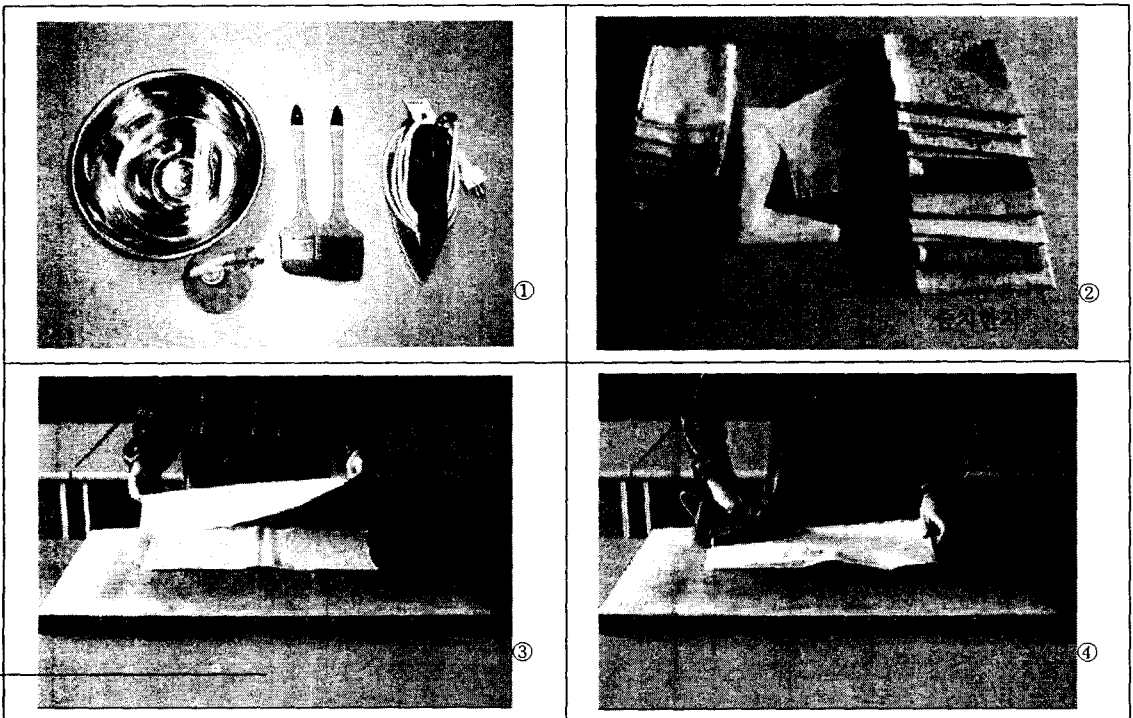
⑥건조된 한지는 자연스러운 구김이 생겨 가죽과 같은 질감의 종이 가 되는데, 건조된 후에도 구겼다가 펴주는 작업을 반복하면 재질이 더욱 부드럽게 할 수 있다. 이때 완전히 건조되어 바짝 마른 상태에서는 너무 뻣뻣하여,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구김을 주게 되면 찢어질 수 있으므로, 물을 스프레이한 다음 다시 구김을 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⑦⑥의 과정이 마무리 된 한지의 뻣뻣하고 거친 질감 그 자체를 살려 용품을 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조된 한지를 다림질하면 부드러운 질감의 줌치 한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다림질하여

정리하여 주면 제도나 재단 등의 마름질 작업이 용이 하기도 하다. 다림질 할 때는 다리미를 밀어 주면서 다림질하면 구김이 펴져, 줌치하여 형성된 고유한 질감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살짝 눌러가면서 다리미를 이동시켜주는 것이 좋다.

2) 접착심(接着芯) 부착법

공예가들이 공예품을 제작하거나 의류디자이너들이 한지의상을 만들 때 종종 한지에 심지를 접착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접착심지는 직물(織物), 편성물(編成物), 부직포(不織布)를 기포(基布)로 하여 열가소성수지를 도포하여 press機나 다리미로 가열·가압하여 어떠한 직물이나 부착할 수 있으며, 풀을 사용하거나 시침(八刺뜨기)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생략되며 봉제시간이 절약되어 비기술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재료이다(조차, 1991). 심지를 한쪽 면에 접착시켜주면 강도 및 탄력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줌치하는 경우보다 손맛이 떨어지기는 하나 접착심지의 두께, 유연성, 재질 등에 따라 다양한 질감이 부여되기도 한다. 줌치에 비해 한지를 바느질



<그림 2> 접착심을 부착하여 한지를 바느질 소재화하는 과정



소재로 수월하게 가공·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교과시간이 부족한 경우나, 작업의 난이도를 쉬운 쪽으로 하여 수업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재료, 용구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재료 및 용구 : 한지, 접착심, 붓, 볼, 다리미, 건조대

· 방법

① 우선 한지 한 장에 물을 스프레이하거나, 붓으로 물을 발라 흡습시킨 다음 여러 방향에서 끌고루 구김을 준다. 마른 상태로 구김을 주면 종이 가 찢어지기 쉬우므로 흡습시킨 상태로 구김을 주는 것이 좋다.

② 잘 정돈하여 건조시킨 다음, 물을 스프레이 하여 다림질한다.(다림질시 주의사항은 좀처럼 때와 같다.)

③ ②의 과정이 끝난 한지 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구김한지 위에 접착심지를 올려놓고,<sup>7)</sup> 다리미로 눌러 한지에 심지를 접착시킨다. 이렇게 하면 한지에 자연스러운 구김이 형성되어 부드럽고, 가죽과 같은 재질과 질감이 형성되는 한편 심지로 인하여 강도도 보강되어, 내구성 있는 생활용품으로 바느질할 수 있게 된다.

### 3) 염색법

이상의 चु미기법이나 한지에 심지를 접착하는 가공 처리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색상, 무늬, 재질의 한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아동들로 하여금 바느질하게 될 한지에 직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염색하여 다양한 색상을 표현해 보도록 하는 수업활동의 전개도 시도될 수 있다. 한지를 염색하는 작업은 염료, 염색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주변의 자연소재를 염재로 하는 천연염색을 통해 한지에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사용할 수 있다. 천연염색은 그간 합성염료가 다양한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간편하게 염색할 수 있는 점 때문에 합성염료에 밀려 실생활에서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일부

소수의 공예가들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어오고 있었으나, 부드럽고 은은한 색상을 발현할 수 있다는 점, 염색폐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인체에 대한 자극이 적고 오히려 일부 염재는 항균·항암·방충<sup>8)</sup> 등의 생약효과를 가지기도 한다는 점 등이 환경친화적인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현대에 와서 새로이 주목받게 되었다(정나영·이전숙·최경은, 2000). 근년 들어서는 공예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천연염색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천연 염재를 추출하여 염색하는 교수·학습활동은 아동들로 하여금 표현활동과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게 하는 활동이상의 의미가 있다. 즉 바느질 소재로 환경친화적인 한지를 활용하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아동들에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되짚어보는 수업활동으로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연 염재를 추출하여 염색하는 방법은 각 염재의 이화학적 특성에 따라 추출조건이나 염색방법 등이 다양하여 범위가 넓어 본고에서 다 다루지는 못하고, 1-2가지 염재의 경우만 간략하게 소개하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에는 천연염색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어 천연염색 관련서적이거나 인터넷 등에서 어렵지 않게 자료를 얻어 이용할 수 있다. 염재로는 주변에서 볼 수 있으며, 구하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과교과를 포함한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것들<sup>9)</sup>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먹물, 장미꽃, 적색양배추, 파프리카, 쪽, 포도껍질, 애기뽕풀, 맨드라미, 봉숭아, 밤, 팽감, 커피, 녹차, 치자, 울금 등이 있다.

둘째, 합성염료나 미술시간에 사용하는 물감을 이용하는 염색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염료로서 천연염료, 합성염료 및 합성물감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셋째, 한지 전체를 염색하거나 또는 도안이 있는 부분만 날염하는 것처럼 염색할 수 있다. 그런데 한지 전체를 염료액에 담가 침염하는 방법은 공예가들의 경우 좋은 지질의 한지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일반한지는 아동들이 침지하

7) 이때 심지는 열가소성 수지분말이 도포되어 있는 쪽과 한지 쪽에 접하도록 하여준다. 보통 수지가 도포되어 있는 쪽이 반짝거리거나 까슬까슬하다.

8) 황벽으로 염색한 한지는 방충효과가 있어 보관성이 뛰어나, 보관용 서적이거나 수의 등으로 활용되거나 하였다.

9) 5학년 2학기 과학 단원의 용액 추출하기에서 장미꽃잎, 적색양배추, 파프리카 등의 색소를 추출과 관련된 실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추출한 색소성분을 이용하거나, 서예시간에 쓰는 먹물 등을 이용하여 농도를 조절하여 다양한 농도의 표현활동이 가능한데, 다른 교과에서 사용되는 수업제제를 활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표 1〉 한지 바느질 소재화 기법 및 염색법의 준비물, 소요시간, 바느질 수업 및 소재로서의 특성

특성		준비물	시간	특성
소재화기법				
쥬치기법		한지, 붓, 볼, 다리미 등	-2차시	-적층하는 한지의 수 및 치대는 작업정도에 따라 두께, 강도, 재질 등이 달라짐. -내구성 증진, 가죽과 독특한 재질 부여
접착심 부착법		한지, 접착심, 붓, 볼, 다리미 등	-1차시	-심지의 특성에 따라 두께, 강도, 재질 등이 달라짐 -한지의 구김치리정도에 따라 재질이 달라짐 -내구성 증진, 가죽과 독특한 재질 부여 -작업시간과 노력이 비교적 적게 소요.
염색법	합성염료등을 사용하는 경우	한지, 합성물감 또는 합성염료, 붓, 볼	-1차시	-바느질 소재화작업 전에 또는소재화작업 이후에 모두 적용가능. -침염, 날염, 흘치기염 등 다양한 기법 적용 가능
	천연염료를 사용하는 경우	천연염재, 염료추출장치, 한지, 붓, 볼	-2차시	-천연염색법을 적용하는 경우 환경수업의 의의를 살릴수 있음 -시간이 부족한 경우 색, 문양이 있는 한지로 대신할 수 있음.
직조,타피스트리, 편성법		한지사, 직기, 편기, 타피스트리 프레임 등		-직물, 편성물의 형태로 만들어져 이용될 수 있으나 초등학교 바느질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시설, 시간, 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해 볼 때 무리인 것 같음.

여 염색하기에는 지질이 약하여 찢어질 수 있으므로, 일반한지를 이용하여 침염하는 것보다는 넓은 붓을 사용하여 붓염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붓 이외에도 염료액을 준비하여 빗이나 분무기로 흘뿌리기 하거나, 한지를 물로 스프레이하여 흡습시킨 다음 접어 부분적으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만약 실과교과에 배당된 수업시간만으로는 한지 염색작업을 위한 활동내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족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술교과의 구성이나 기타 표현활동과의 통합수업의 형태로 연계하여 수업활동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으로 제작된 한지사로 편성하여 니트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들 방법은 고난도의 기술과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으로 초등학교생들에게 적용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지를 바느질 소재화 하는 방법, 색상 또는 무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염색법 등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방법마다 소요 시간, 작업 난이도, 시설, 바느질 교육 소재로서의 특성이 표 1에 정리하여 제시한 바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아동들의 흥미나 수준, 시설,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기타

직조(織造),<sup>10)</sup> 타피스트리<sup>11)</sup> 및 편성(編成)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지사는 한지를 좁은 폭으로 자르고 실처럼 꼬아서 직조기나 타피스트리 프레임에 걸어 직물처럼 짜서 옷, 수의, 숄, 모자, 가방, 지갑, 벨트, 브로치 등으로 제작되기도 한다. 또한 같은 방

IV. 요약 및 결론

지금 우리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즉 전시대인 20세기 '고도의 산업화'시대에서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만끽할 수 있었지만, 대신에 '자원의 고갈', '환경오염에 의한 생태계파괴' 등으로 인류전체의

10) 경사(날실)와 위사( 씨실)를 서로 직각으로 교차시켜 천을 만드는 것으로, 만들어진 천을 직물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작업에 의하는 경우를 織造라고 하며, 동력을 사용하는 力織機를 이용하는 경우는 製織이라고 표현한다. 식탁보, 식탁매트, 쿠션, 방석, 숄, 머플러 등 다양한 용품들을 제작할 수 있으며, 직조된 것을 바느질소재로 활용할 여의류나 생활용품을 제작하기도 한다.

11) 타피스트리(tapestry) : 사각프레임에 경사를 걸고 그 경사를 기본으로 원하는 디자인에 따라 위사를 짜서 원하는 문양을 표하는 기법으로 실 이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직조에 비해 섬세하게 문양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사회전반에 깔려 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접어들어 많은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다양한 정보통신매체의 발달 및 급격한 변화,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정보 등을 일일이 다 배우고 터득하여 소화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급변하는 세계화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도 이러한 시대·상황적 어려움과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교육', '창의성교육', '전통문화교육' 등이 강조되고 있다.

전통한지는 서양의 종이에 비해, 보존성, 유연성, 강도, 통기성, 자외선차단성 등 여러 우수한 성능을 가져 단순히 '종이' 이상의 기능을 하였다. 즉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생활 속에서 서적용지뿐 아니라 주거용(창호지, 장판지), 의류 및 생활용품의 소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대량 생산되는 새로운 재료들에 밀려 점차 생활 속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많은 우수한 물리·화학적 성능, 전통미, 환경 친화적인 요소, 뛰어난 공예활용성 등으로 오늘날 새로이 조명 받고 있어, 21세기 학교교육현장에서 '환경교육', '창의성교육', '전통문화교육' 위한 수업소재로서 교육적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 실과 바느질 수업에 전통한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지의 특성 및 용도, 한지공예의 종류 등에 대해 선행연구 및 참고 자료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한지를 바느질 소재화 하기 위한 가공처리를 학교교육에서 바느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제시하였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2002a).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 교과서.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2002b).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 교사용 지도서.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2002c). 초등학교 3, 4, 5, 6학년 미술 교과서.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2002d). 초등학교 3, 4, 5, 6학년 교사용 지도서.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광복(1992). 색지공예. 서울 : 대원사.
- 김효숙(1998). 의류 봉제 방법. 경춘사, 5-8.
- 임경희(1990). 한지공예의 전통성과 현대성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경해(2002). 천연 염색 한지의 조형적 가능성에 관한 연구-생활공예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국교육대학교 실과교과교육연구회(2001). 실과교육론. 양서원.
- 상기호(1995). 오색한지공예. 한림출판사.
- 상기호, 임영주(1997). 종이공예문화. 한림출판사.
- 신상옥, 이수희(1997). 가정과 수업 :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서울 : 신파출판사.
- 안선희(1993). 국민학교에서 한지 작업을 통한 전통 미술지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옥순, 오옥선(2000). 초등학교의 미적 감각 신장을 위한 한지공예 학습지도안 개발. 군산대학교 논문집, 15, 101-116.
- 윤순중(1998). 우리나라 전통공예 계승을 위한 디자인·공예교육.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2000). 전통 한지 공예를 활용한 수업 방안에 관한 연구(중학교 2학년 꾸미기와 만들기 수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나영, 이진숙, 최경은(2000). 염색조건에 따른 양파 껍질의 염색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3(1), 51-63.
- 정혜경(1998). 초등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전통 미술 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차(1991). 직물접착심지에 관한 연구(Ⅰ). 대한가정학회지, 29(2), 35-46.
- 최경은(2001). 초등 실과 가정과학 영역의 교수-학습 자료 개발 전략-의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5(1), 145-175.
- 최청림, 정미경(2003). 초등실과 환경단원의 창의적 문제해결수업이 아동의 창의성 및 환경의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학회지, 15(4), 115-132.
- Chamberlain, V.M. & Kelly, J.M.(1981). *Creative Home Economics Instruction*. New York : MacGraw-Hill Book Co.

### 〈국문 요약〉

전통한지는 서양의 종이에 비해, 보존성, 유연성, 강도, 통기성, 자외선차단성 등 여러 우수한 성능 등을 가져 단순히 '종이' 이상의 기능을 하였다. 즉 우리 조상들은 생활 속에서 서적용지뿐 아니라 주거용(창호지, 장판지), 의류 및 생활용품의 소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대량생산되는 새로운 재료들에 밀려 점차 생활 속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했다. 하지만 많은 우수한 물리·화학적 성능, 전통미, 환경 친화적인 요소, 뛰어난 공예활용성 등으로 오늘날 새로이 조명 받고 있어, 21세기 학교교육현장에서 '환경교육', '창의성교육', '전통문화교육' 위한 수업소재로서 교육적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 실과 바느질 수업에 전통한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지의 특성 및 용도, 한지공예의 종류 등에 대해 선행연구 및 참고자료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한지를 바느질 소재화 하기 위한 가공처리를 학교교육에서 바느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제시하였다.